

* 반송에 반하다



2017년,
한해를 돌아보다.

“당신의 2017년
한 해는 어떠셨나요?”

“저는 당신과 함께여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Contents

주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 반송의 디딤돌	반송종합사회복지관
04 어르신들의 흥나는 휴대폰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아미고』	22 찾아가는 반송복지관	30 2018년 반송복지관 사용설명서
06 생활복지운동_인사캠페인 『주민을 만나 4.4.4』	24 우리들의 연결고리,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마을지지망 네트워크』	32 여기여기 붙어라 『생활복지운동 인사캠페인』
08 가족의 꿈을 그리는 웹툰 동아리 『하루 한 컷』	26 같이의 가치, 우리마을이 기억합니다.	33 여기여기 붙어라 『마을궁리』
10 오늘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모습을 엿보는 『한 끼 줍쇼』	28 함께 한 2017년, 함께 할 2018년	34 여기여기 붙어라 『꿈나다』
12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반(송) 꽃(어르신) 선도단』		35 여기여기 붙어라
14 반송 할매들은 우리에게 맡겨라! 『오지라퍼 칠할매』		
16 주민이 원하는 복지관, 주민이 꿈꾸는 공간으로!		
18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 『반송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야기』		
20 일 그이상의 가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21 복지관소녀 칼럼 『담배가게소년과 복지관소녀』		





부산광역시 주최
2017년 사회복지관
이용 고객만족도 평가 우수



지난해 보내주신 관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귀하의 가정
에 평안과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반송의 디딤돌을 놓는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일동 -



유주원

어르신들의 흥나는 휴대폰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아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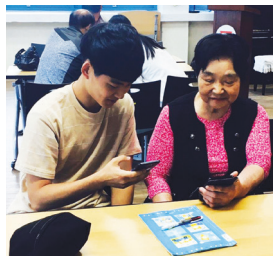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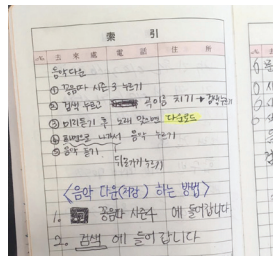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현이라고 해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미고 활동을 한 1년간의 시간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르신들과 처음 만날 날 나누었던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서로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고, 한 학기동안 배우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물어보기도 하며 어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만남부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던 김옥선 어르신은 제 이름 석자를 까먹지 않기 위해 작은 수첩에 김·아·현 이름 석자를 꼭꼭 눌러 적으셨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인사를 시작으로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1시간씩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휴대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다보니 자연스럽게 어르신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어 좋았고, 어르신들을 통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짝지선생, 점심 안 먹었제? 친구들과하고 가자!

할매가 칼국수 사줄게.”

“추석인데 뭐하노? 우리 집에 놀러올래?”

**“우리 짝지 고양이 키운다고 했제? 이거 집에 있어서 들고 와봤다.
선물이다!”**

“김아현 선생님, 그 동안 열심히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1년이 지난 지금, 어르신들은 마치 손녀딸처럼 저희를 예뻐해 주십니다. 쿤은 점심 걱정, 명절 인사, 시험 잘 보라는 응원문자, 그리고 흘러가듯 나눴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는 선물까지...1년 동안 어르신들을 만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어르신과 세상을 이어줄 휴대폰을 가르쳐 드리다보니 어느새 어르신들과 우리는 이어져 있었습니다.



석진우

생활복지운동_인사캠페인 『주민을 만나 4.4.4.』



‘복지관에서 이런 활동도 하네, 그래.
누구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보자!’

입사초기 생활복지운동을 맡게 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전 담당자가 했던 활동들을 따라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학생들의 의견으로 진행되는 반송중학교 인사캠페인을 진행하며 ‘보다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겠다,’ ‘다양하게 해보고 싶다,’ ‘학생들과도 하는데, 주민들과도 해보고 싶다.’ 등의 다양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신입사회복지사에게 무엇을 바꾼다는 것은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석쌤, 하고 싶은 것 해봐. 쌤이라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똑같은 활동과 진행에 지친 담당자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말들이었습니다. ‘그래 해보고 안 되면 다르게 하면 되지, 될 때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으로 무작정 회기를 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송복지관입니다!
인사캠페인 참여하시고 가세요!”
“잠깐만 참여해주시면 돼요!”

보다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었고, 주민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흥미가 당길만한 문구와 활동으로 캠페인을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안 힘들어요? 그런데 왜 해요?”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바꾸고 나니, 그제야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캠페인활동에서 는 듣지 못했던 주민들의 이야기는 ‘네가 힘들어 보인다’ 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의 무관심보다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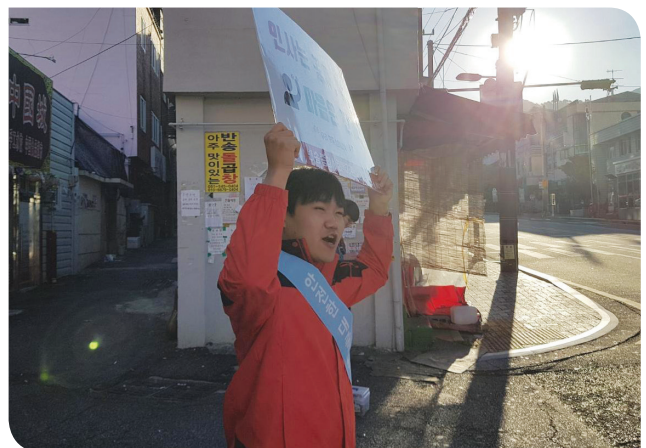
“복지관에서 이런 활동도 하네, 다음번에 나올 때 미리 연락 줘.”

“여기는 지금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와야 주민이 많아.”

“여기보다 저 밑 사거리가 사람이 더 많으니깐, 다음에는 그 쪽으로 가봐.”

주민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인사캠페인은 아직까지도 담당자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관심을 보이는 주민들이 한명, 두명 씩 늘어나고 있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겠다는 생각에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고, 함께하며, 많은 것을 배우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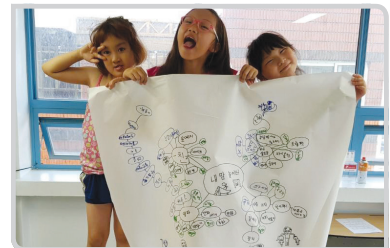
이민정

가족의 꿈을 그리는 웹툰 동아리 『하루 한 컷』



『하루 한 컷』은 반송동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의 꿈을 그리는 반송복지관의 웹툰 제작 동아리입니다.

Chapter 1. 아이들의 한 컷 : 꿈을 더하다.



“우리 동네에는 할머니가 많잖아요.
그분들은 지혜가 많아서 배울게 많지 않을까요?”

반송동에 거주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하듯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재미있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전지에 다 함께 ‘내 맘 놀이터 마인드 맵’을 그려보았습니다. 수업에 초대하면 좋을 친구들을 먼저 마음껏 적어준 뒤, 수업을 도와주거나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을 적어보았습니다. 친구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인물은 청소, 빨래, 미용, 피아노, 미술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우리 ‘엄마’였습니다. 또한, 옆집에 살고 계신 할머니의 연륜에서 나오는 생활의 지혜, 매주 토요일 프로그램 참여할 때마다 늘 복지관 앞에 앉아계시던 어르신들에게 듣는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아이들에게는 우리 동네 사람 모두가 아이들의 꿈을 더해줄 선생님이었습니다.

Chapter 2.

엄마들의 한 컷

: 재미를 스케치하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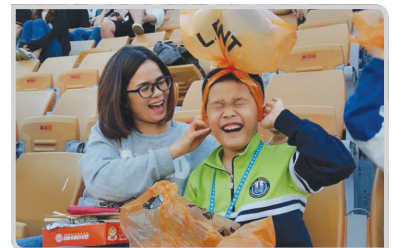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제일 좋은 선생님이겠죠, 그래서 어머님들과 함께 고민하다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아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못하는 것이 없는 우리 동네 엄마들이었습니다.

다른 친구와 어울리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평일에 미술활동을 진행해주신 은수엄마 김미경어머님, 늘 엄마이여기를 빼놓지 않았던 다향이와 다향이엄마 박영미어머님이 친구들을 위해 함께 진행했던 요절복통 과학수업, 본인 운동 겸 집중력·순발력 향상을 위해 스포츠 스타킹 수업을 받은 것을 아이들과 해보고 싶다고 부족한 물품까지 직접 준비해서 준비해주신 운도엄마 김경화어머님, 그리고 시간상 직접 활동에 참여는 못하셨지만, 매순간마다 우리아이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몸소 실천해주신 어머님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꿈이 한 뼘 더 자란 것 같습니다.

Chapter 3.

가족들의 한 컷

: 가족을 채우다.



“온 가족이 함께 동물원도 가보고 싶고, 야구장도 가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학원들도 많이 생긴 요즘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맞벌이에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 한 컷의 나들이는 가족들에게 하나의 이벤트였습니다. 평소 아이들이 가고 싶어 했지만 여러 가지 핑계로 데려가지 못했던 장소를 엄마들과 이야기 해서 직접 가보고 다른 엄마들이 알려준 장소를 검색해보면서 새로운 장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들이 날짜는 며칠 남았는지 아이들과 손꼽아 세어보며 기대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엄마와 둘이 갔던 나들이가 점차 가족들이 다함께 가는 나들이가 되면서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기훈

오늘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모습을 엿보는 『한 끼 줍쇼!』



“어머님, 밥 좀 주세요!”

당신이 가장 편안해하시는 데에 찾아가 밥을 핑계로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엿보려고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가까이 다가서고 싶었던 초보사회복지사의 구걸프로그램, 무작정 밥을 달라며 떼를 써보기도, 간장에 밥만 주셔도 된다고 사정을 해보기도 했던 『한 끼 줍쇼!』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이 더러워서 안 된다, 남사시럽다.” “혼자 살아 뭐 먹을 것도 없다, 고마 밖에서 먹자.”

어르신들에게 점심 한 끼 달라고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집이 더러워서 초대하기가 어렵다는

어르신, 대접해줄 음식이 없어 안 된다고 하시는 어르신, 밖에서 맛있는 것을 사주시겠다는 어르신까지... 그래도 싫다고 하시거나, 밥을 안 주신다고 하시는 어르신은 없었습니다.

“그거 먹어가지고 되나, 돌도 씹어 먹을 나인데.” “먹고 모자라면 더 먹고, 이것도 먹고 해봐라.”

굽이굽이 골목을 따라 찾아간 어르신 댁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얼핏 봐도 갓 지은 것으로 보이는 하얀 쌀밥에 냉장고 깊숙하게 넣어두셨던 생선과 고기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러곤 고봉밥을 한 가득 떠 주십니다. 손자빨인 담당자를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는 마음에 제 귀에는 입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은 할 만하나?”

“부모님은 두 분 다 건강하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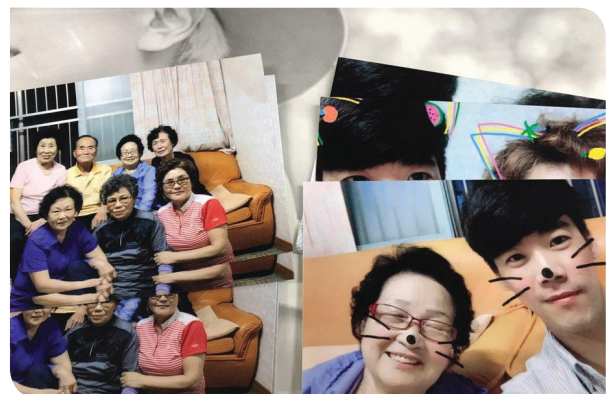
누구와 함께 사시는지,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시는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신지, 어르신들과 점심을 먹으며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잠깐이나마 어르신들의 하루를 엿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담당자가 일찍 일어나기라도 할까봐 밥을 계속 주십니다. 복지관에서 저는 간간하고 귀찮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여기서만큼은 당신의 손자가 되나봅니다. 그러다 당신을 찾아온 담당자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나이는 몇 살인지, 집은 어딘지, 일은 할 만한지, 부모님은 잘 계시는지 등 자주 볼 수 없는 손자를 대신해 잠시나마 당신의 손자가 되어봅니다.



“내 엿저녁에 꿈자리가 사납드라, 별 일 없제?”
“일 끝나고 저녁 먹으러 오니라.”

한 끼 줍쇼를 통해 만들어진 어르신들과의 관계는 담당자의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겠다고 일이 끝나면 오라던 어르신, 꿈자리가 안 좋았다며 안부 연락을 해주시는 어르신, 일이 늦게 끝나 집에 가지 못하면 당신의 집에 와서 자고 가라던 어르신까지... 조금이나마 당신의 하루를 엿보려던 저를 당신의 삶에 포함시켜 주신 것이 기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항상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 하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더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김재동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반(송) 꽃(어르신) 선도단』



‘마을 구석구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오랫동안 거주하신 어르신들이 가장
마을에 대해 잘 알지 않을까?’

이 두 가지 물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한 분의 어르신이 총 스물여섯분의 어르신을 모아주셔서 시작된 어르신 방법조직, 반송꽃어르신선도단, 반꽃선도단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루, 이틀 할 것이면 시작도 안해야지!
일주일에 세 번은 돌아야 하지 않겠나?”
“이왕 시작한 거 확실하게 해야지,
빠지고 이러면 안 돼!”

2017년 한 해 동안 매주 월, 수, 금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씩 초록색 조끼를 입고 마을의 구석구석을 어르신들과 함께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가 참 정이 많아 살기에는 좋은 곳
아이가?”

“그래도 아직 고칠 곳이 많다! 당장 우리 집
앞도 감감해서 다니기 무섭다이가.”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을 둘러보며 우리 마을이 다른 곳보다 좋은 점, 고쳐야 할 점, 조심해야 할 점 등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한 발걸음만큼 어르신들 간의 정도 점점 더 깊어집니다.



‘여기는 애들이 모여서 담배피는 곳이니 항상 순찰을 다녀야지’
 ‘애들 등하교 길을 자주 순찰하는 게 좋지, 애들이 안전한게 최고지’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다니면 못 버리지 않겠나?’



단순히 순찰활동만 하는 것이 아닌 마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아이들도 걱정하고 골목길도 유심히 살피는 분들, 사회복지사의 눈이 아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고 활동하시는 분들,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 힘든 것 보다 마을을 좀 더 생각하시는 분들, 반꽃선도단 회원들 덕분에 반송이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을을 위해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한번 놀러가자!”
 “우리가 놀러가는 건데, 우리 돈으로 해야지!”

이 두 가지 의견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내시는 회비로 시작된 반꽃선도단회원사업, 팀별 단합대회를 통해 에너지 충전도 하고, 서로간의 이야기도 더욱 쌓여 갑니다.

초록색조끼를 입고 다니다가 이웃을 만나면 항상 들리는 이야기.

“이 시간에 뭐하노? 일하냐?”

“일은 무슨, 내 지금 선도활동 하고 있다가!”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라는 사명감으로 시작하여 초록색 조끼를 입고 모인지 벌써 1년, 우리가 다니는 만큼 우리 마을이 안전해진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다닌 2017년 한해였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장미연

반송 할매들은 우리에게 맡겨라! 『오지라퍼 칠할매』



“아유, 행님 내가 요즘 기억력도 나빠지고, 점점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기라, 다 그래 살아가는기지.”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관 3층에서는 온갖 이야기보따리가 풀어집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함께해U-우정나눔미 어르신들입니다.

함께해U-우정나눔미는 반송 1동 지역 내 우울감이 있는 홀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원예, 요리, 다양한 공예활동 등의 체험, 나들이, 자조모임 등을 구실로 어르신들끼리 친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17년 한 해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모임날이면 항상 즐겁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어르신들, 하지만 한 분 한 분 찬찬히 들여다 보면 그 분들의 삶 속에 각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래 나와가 사람들도 만나고, 복지관 안 갈 때는 행님 집에 가서 놀고, 그게 재미라!”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어르신들과 참 많은 것들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참 즐거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골목에 혼자 남겨진 다른 어르신들이 항상 마음에 걸리셨나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괜찮은데, 몸이 안 좋아가 집에 혼자 있는 할매들은 우짜노. 여 함께 와서 같이 놀면 참 좋을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조금 더 활짝 웃으실 수 있는지, 덜 우울해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어느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푸로그램을 할매들 집에서 하면 안되나? 그러면 움직이기 불편한 할매들도 올 수 있다가. 우리는 여서 오랫동안 푸로그램 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손수건 맵그는 것도 가르키주고 그라믄 되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골목, 내 친구 개똥이 할매들과 함께하기 위해 골목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할매들이 제일 잘하는 오지랴 활동! 오지라퍼칠할매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최민지

주민이 원하는 복지관, 주민이 꿈꾸는 공간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감각치료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엄마들에게도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밀반찬을 만드는 요리교실도 좋지만, 제 과제빵교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빵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지관에 올 수라도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정이 있어 못 오는 사람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나서서 돕고 싶습니다.”

- 2017년 장애인특성화사업 이용자공청회
주민 발언 중 인용 -

Chapter 1.

‘복지관’이 편해지자, 마음을 열기 시작한 주민들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던 1년차가 지나고 2년차가 되니 주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고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 ‘복지관 사무실은 주민보다 사회복지사에게 더 편한 공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두 번째 고민, ‘주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사무실은 사회복지사와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편하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임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나니, 지금은 오히려 주민들이 환한 미소로 먼저 저희를 반겨주시면서 사무실로 들어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마시러 왔어요, 오늘은 뭐 하는 프로그램 없어요?”

“우리가 뭐 도와줄 것 없어요?, 오늘도 야근하나보네요!”

두 번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을 할 땐 메뉴뿐 아니라 재료 하나도 함께 고민했고, 체육 프로그램을 할 땐 어떤 체육활동을 하고 싶은지 여쭙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계획은 물론 활동과정도 스스로 남기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려도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들어줄 리가 없다.”

“우리는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른다.”

“선생님, 고마 알아서 프로그램 짜이소.”



라는 이야기에 풀이 죽은 적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없어도 저를 찾아와서 고민을 나누시는 분, 집이 같은 방향이니 퇴근하고 같이 가자고 하시는 분, 프로그램 계획서를 가지런한 손글씨로 적어 제 책상위에 올려놓고 가시는 분까지... 제 고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은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2년의 짧은 시간동안 가장 가슴이 벅차 올라왔을 때를 꼽는다면 2017년 장애인특성화사업 이용자공청회였습니다. ‘나’보다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장애인까지 생각해서 ‘우리’ 라고 표현해주시는 달라진 참여주민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Chapter 2.

‘사회복지사’는 주민의 마음을 듣는 일을 해야 한다.

신입시절이 지나 2년차인 지금까지, 저는 제가 하는 사회복지분야의 일에 대한 특별함이 뭘까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꿈꾸는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저는 ‘주민이 좀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편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땐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기쁜 일과 슬픈 일은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에 대한 특별함은 ‘주민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이 마음을 여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은 주민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 모두가 소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언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

『반송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야기』



“드르륵, 드르륵”

매일 아침 10시, “드르륵~”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너나할 것 없이 반가움에 설 새 없이 잘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를 쏟아내는 이용주민들. 매일 보는 얼굴의 선생님인데 뭐가 그리도 반가울까요?

지적·자폐성 장애 1-3급 장애인 15명이 아침에 등원해서 동료들과 신나게 수다를 떨고 체조를 한 뒤 인지학습, 점심 맛있게 먹고 운동하고 영화나 게임, 일상훈련 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들. 거의 매일 매일이 비슷한 래퍼토리로 반복되지만, 하루하루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바라이어티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이 곳, 여기는 ‘반송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저는 사회복지사 박광언입니다.

“퍽, 퍽”, “으~~”

하루 종일 도무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는 이용자, 멀찌감치 떨어져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 소리에 반응해 자기 머리를 때리고 있는 또 다른 이용자, 자해를 줄이기 위해 소리를 못 내게 하면 인상을 쓰면서, 짜증을 있는 대로 내면서 다른 이용자를 때리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 “괜찮아요, 나쁜 소리 아니에요. 형한테 가서 조용히 하라고 부탁해보세요”, 조용히 다가가 손을 머리에 올리고 “으~~”라고 하면 한동안 잠전해집니다. 이제는 머리 때리기가 아닌 박수를 치거나 다리를 굽도록 하는 대체행동을 연습시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실무자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소리 내는 형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화장지는 그렇게 뭉치는 게 아니고 반듯하게 펴서 접어요.”

“아니요~. 한 번만 뒹고, 접어서 또 뒹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내가 뭉쳐서 화장지 주면 아니라고 막 뭐라고 해요.”

꾸준히 반복해서 지도한 결과 이제는 집에서도 곧잘 따라한다며 자랑하는 보호자 가족과 실제로 발전하는 이용자를 보면서 별 것 아닌 듯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실무자들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같답니다. 느리지만 조금씩 틀림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장애인 이용자를 보면서 하루일상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1박 2일 캠프 덕분에 약 20여년 만에 남편이랑 오붓하게 야경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에 갔다 올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보호자분들에게 들었던 말씀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 속의 순간들이 보호자분들께는 남다른 순간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작은 행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보호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더 많은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은

일, 그 이상의 가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일 대화상대가 없었는데, 복지관에 오면 이야기할 친구가 있어서 좋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였지만 함께 일하면서 친구가 되어 안부도 묻게 되고, 안 보면 보고 싶어 전화도 하고, 목욕도 함께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니 참 좋더라고...”

“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 자신도 긍정적으로 점차 변하더라고...”

1주일에 세 번, 서로 얼굴을 보며 어제 뭐하고 보냈었는지, 며칠 전 딸이 찾아와서 맛있는 반찬을 해주고 갔으니 오늘 일 마치고 점심을 함께 먹자는, 오늘은 월급날이니 집에서 밥 먹지 말고 복지관 앞 칼국수가게에서 외식을 하자, 요즘 따라 왜 그리 기운이 없는지... 단순히 돈 버는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신 당신...

당신에게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 ● ●

『복지관소녀 칼럼』 ‘담배가게 소년과 복지관 소녀’



김인숙



빈의 조그만 담배 가게에서 견습생활을 시작한 17살 프란츠는 하루종일 가게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모든 종류의 신문을 꿈
꿈이 읽고 담배와 신문을 사러오는 단골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넓은 세상을 알아간다. 어느 날 담배가게 손님으로 '지
그문트 프로이트'가 등장하면서 평범했던 소설이 특별해진다. 첫사랑 아네스카와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프란츠는 프로이트 박
사에게 조언을 구한다. 이 위대한 정신분석학자에게 연애상담이라니 무릎을 치는 순간이었다. 로베르트 체탈러의 소설 <담배가
게 소년>은 이렇게 프란츠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묻고 답하기로 프란츠와 아네스카의 사랑을 통해, 나치와 유대인에 대한 탄
압 등 그즈음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 소년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다.

프란츠가 담배가게 소년이라면 나는 이른바 복지관 소녀다. 지역 복지관이라는 공간에서 나는 26년 동안 지역주민과 자원봉
사자 그리고 후원자들을 만나며 사회복지사로서 세상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프란츠가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만난 것처럼, 만
약이지만 역사적 속의 인물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누구를 만나고 싶은가? 단연코 제인 아담스이다.

제인 아담스는 미국에서 지역사회 복지관 운동을 최초로 일군 여성운동가이고, 평화운동가이며, 교육자이자 정치가였다. 1860
년 미국 일리노이 주 시더빌 이란 곳에서 태어난 체구가 작고, 병약한 여성이었다.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의과대학에 입학
하였지만 고질병인 척추병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휴양여행으로 유럽을 가게 되었다. 그녀는 런던의 동부 빈민지역에 세운 세
계 최초의 지역사회복지관인 토인비 홀을 방문하게 되었다. 토인비홀은 빈곤의 본질이 경제적인 문제로만 탓할 수 없으며, 교
육을 통해 빈민 스스로가 자신을 변화시켜야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빈민운동가 토인비를 기념해 만든 곳이다.

미국에 돌아온 제인 아담스는 시카고에 찰스 헐이라는 건물주에게 빈집을 얻어 헐 하우스라 이름짓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
육, 숙식, 탁아, 체육, 문화, 친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생활과 복지의 거점으로 일구어 나갔다. 당
시 이 지역은 저소득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빈곤과 소외가 가져온 위생문제, 주거문제, 사회적인 불안과 갈등, 복지의 결
핍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사회의 일꾼들을 모아 교육을 시키고, 스스로 돕게 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라면 어떻게든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서 생기와 기쁨, 행복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나갔다.

복지관 소녀는 제인 아담스를 만나면 차 한잔 나누며 물어보고 싶다.

제인, 당신의 헐 하우스가 오늘의 “반송복지관” 속에 살아 있나요?



찾아가는 반송복지관



유 주 원



장 미 연



Q

찾아가는 반송복지관은 무엇인가요?

A. 반송의 주택가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복지관에 찾아오기가 힘든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직접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반송복지관의 경우에는 도움을 청하고 싶는데 복지관이 너무 멀어 도저히 올 수 없는 분들, 복지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 복지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반송 곳곳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Q

그럼 찾아가는 반송복지관은 언제 진행되나요?

A. 매월 2,4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반송 곳곳에서 합니다. 숨어있는 '찾아가는 반송복지관' 현수막을 찾아주세요!

Q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나요?

A. 대부분 지나가는 동네 주민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다가다 ‘힘내라’고 한마디씩 해주시거나 의자에 앉아 잠시 쉬다가기도 합니다. 옆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걱정돼서 부탁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Q 주민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나요?

A. 복불복이에요...
어떤 날을 복적복적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파리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기도 해요.

Q ‘찾아가는 반송복지관’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나요?

A. 네! 있어요. 그 날도 허탕을 칠뻔한 날이었죠. 지나가던 한 어르신께서 ‘어서 뭐하노? 밥은 묵고 다니냐?’라고 무심하게 말씀하시며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어르신께서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오시는게 아니겠어요? 추운날 고생한다며 온갖 과일을 손수 깎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 과일의 효과인지 주변분들이 많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찾아가는 반송복지관은 대박이었죠.

Q 앞으로도 ‘찾아가는 반송복지관’은 계속되나요?

A. 네! 물론이죠! 하지만, 방법이 많이 달라질거예요. 먼저, 복지관 식구들이 모두 총 출동할 예정입니다. 어디로 가냐구요? 바로 주민분들이 살고 계신 골목 속으로 갑니다! 이름도 어서 오소 골목복지관으로 바뀝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그럼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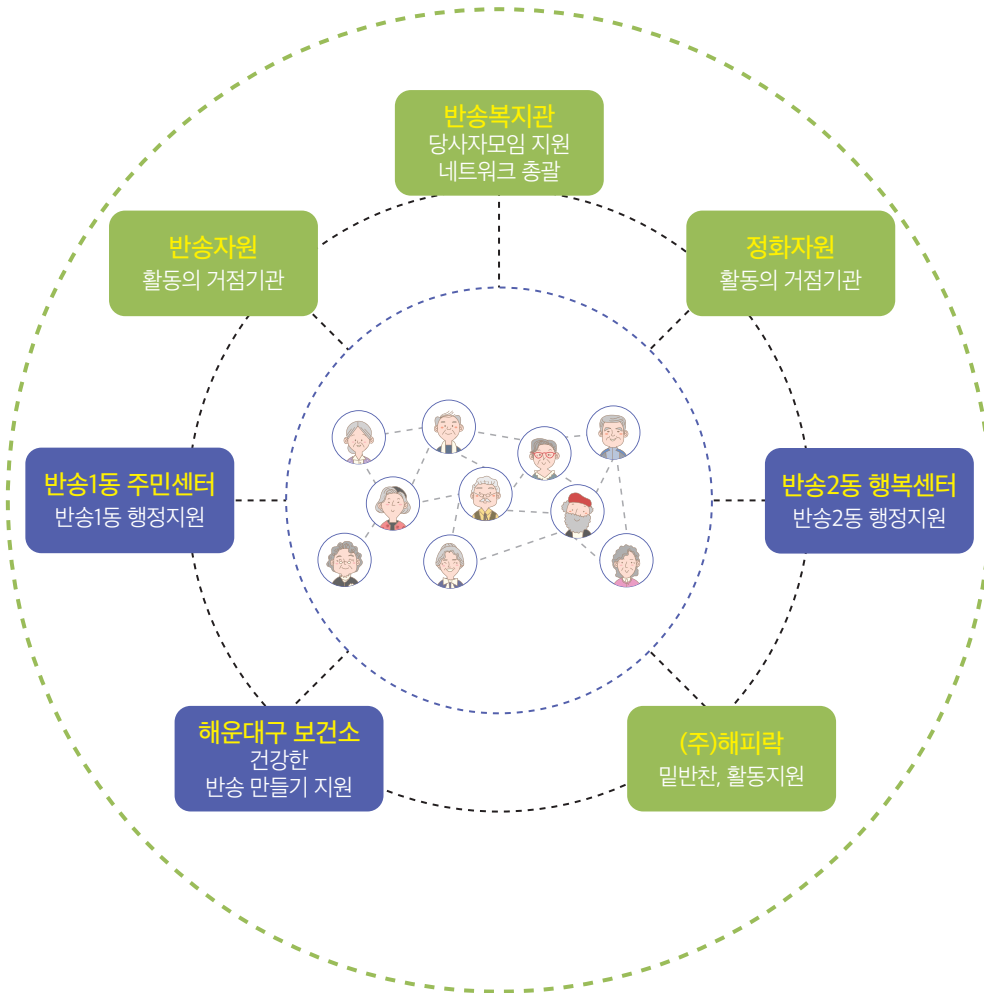




김재동

우리들의 연결고리,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마을지망 네트워크』



“For” 가 아닌 “With”

‘반송동에서 활동하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2016년부터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은 반송자원, 정화자원 2곳의 고물상과 함께 이러한 물음에서 시작하여 고물상을 거점으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반송동에서 활동하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1년간의 활동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2017년 단순 물품 지원이 아닌 어르신들을 **지지**하기 위해 **7개 기관**이 모여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마을지망 네트워크**가 구성되었습니다.

“나는 절대 혼자 다 안가진다....나누면서 살아야지”

오랫동안 반송에서 생활하시면서 두 개를 가지면 하나는 꼭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누시는 분들

“복지관김치가 최고다! 내가 만들었어도 참 맛있더라~덕분에 친구들이랑 나눠서 먹었다이가”

다같이 먹는 재미를 알고 있기에 김치 한조각도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 먹는 분들

“폐지는 안줍는데 내 옆에 참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다...거는 좀 도와줄 수 있는게 없나?”

마을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사회복지사도 알지 못하는, 도움이 필요하신 주민들을 알고 계신 분들

우리가 만난 폐지 줍는 어르신,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 **훌륭한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반송동에는 약 **100여명**의 재활용품 수집 활동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마을지지망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마을 단위의 지지망**을 통해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즐거운 삶을 향유 하실 수 있도록 지지하고자 합니다.



같이의 가치, 우리마음이 기억합니다

영업장

해운주유소, (주)OS에너지, (주)경부에너지, (주)대진여객, (주)동화더파크, (주)이심세계에너지구포셀프주유소, GS칼텍스, (주)SC, 경희본한의원, 금강스틸, 석대추어탕, 달맞이주유소, 대양산업(주), 동아주유소, 동진건설기(주), 디자인불길, 명품주유소, 문화주유소, 반송새마을금고, 반송목초폐지국밥, 반송자원 반송파크(성림석유)주유소, 부산문화방송, 부산은행, 비케이주유소, 서울정형외과의원, 서울치과의원, 성민약국, 신진주유소, 대호석유(주), 아이마트, 우암주유소, 이나과, 백천주유소, 이상윤약국, 다대주유소, 마산월드, 정화자원, 준토타서비스(주), 내집처럼, 해운대신용협동조합

비영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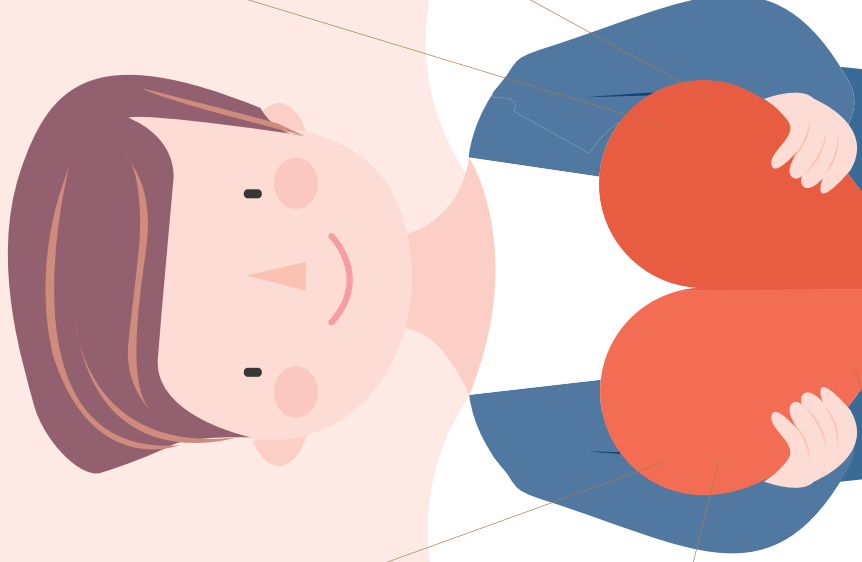
KDB나눔재단, KT&G복지재단, 동백클럽, 동부산교회청년회, 러브하우스, 반송1동주민자치위원회, 반송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반송가인택시연합회, 반송교회, 부산YMCA 부산복지관협회, 부산외아즈메알파클럽, 상성꿈장학재단, 다우회, 아를다운재단, 어린이재단, 반송1·3동 청소년지도위원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운대구청

물품후원(85,324,230원)

(주)미래씨앤티, (주)블루비치호텔 (주)세원산업개발, (주)해피락, GS칼텍스, 강순철, 광배호, 국민연금공단동부산지사, 김미선, 나나케이, 남현지, 넥센&KNN, 농심기마트, 동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동아대병원, 동화당약국, 명랑시대외식식점년창협동조합, 반석복지관, 반송새마을금고, 반송공탕정식, 반송자원, 부산은누리김리교회, 부산정조재단,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성우FS, 아이마트, 동구여성인력개발원, 안양숙, 알뜰농산, 오션브리즈, 은화복지재단, 부산장애인식교육센터 이은주, 익명(1), 임해용,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정연옥, 참밭은 인과,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파리버게트 (반송영산대점),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해운대백병원

모금함설치

G마트, R2커피숍, 고래커피, 기정회집, 돈돈촌, 만나분식(오리가 좋다), 반송공탕정식, 사브랑, 아이마트, 에빠나르, 착한돼지, 춘하추동국수, 카페나무, 통일마트, 파리버게트(반송영산대점)



개인후원자

강영희, 강미영, 강순철, 구성문, 권경숙, 권주영, 관해윤, 김선용, 김선임, 김성국, 김성만, 김소윤, 김수현, 김연실, 김영미, 김영혜, 김은정, 김을숙, 김인숙(53), 김인숙(70), 김장원, 김정임, 김정환, 김지동, 김태희, 김현선, 김현정(77), 김현정(84), 김혜영, 김희석, 나경주, 노노합창단일동, 도상형, 문춘자, 박광일, 박보고, 박상섭, 박조자, 박현숙, 배수한, 배순식, 백용순, 서채빈, 손주성, 손지현, 송영섭, 신현배, 심영진, 심주옥, 안동진, 안봉현, 양미정, 오행모, 윤대성, 윤석찬, 윤종현, 윤현주, 이경숙, 이금희, 이나래, 이명재, 이성욱, 이성재, 이시현, 이은진, 이인경, 이재범, 이재현, 이정미, 이정자, 이창학, 익명(6), 임미정, 임병화, 임혜용, 장병천, 전성호, 전정옥, 전혜숙, 정덕녀, 정말선, 정병운, 정연옥, 정택근, 정형대, 조성란, 조정에, 조현태, 주낙성, 진경숙, 최경식, 최명아, 최인숙, 최임순, 최주현, 허영환, 한상근, 한상켈, 한수태, 한일태, 현영주, 홍유선, 황은지

연간 후원금 수입 · 지출 내역

복지관

2017.1.1~2017.12.31
단위: 원

수입		지출	
수입내역	금액	사용내역	금액
전년도이월금	69,349,857	사무비	1,368,677
		재산조성비	9,190,600
비지정후원금	27,903,815	사업비	20,031,368
		사태관리기능사업비	44,620,387
지정후원금	67,845,247	서비스제공기능사업비	41,064,659
		지역조직화기능사업비	48,823,228
합 계	165,098,919	후원금이월금	165,098,919
		합 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17.1.1~2017.12.31
단위: 원

수입		지출	
수입내역	금액	사용내역	금액
전년도이월금	3,376,218	사무비	88,000
		재산조성비	0
비지정후원금	420,338	사업비	190,090
지정후원금	0	후원금이월금	3,518,466
합 계	3,796,556	합 계	3,796,556

자원봉사자 현황 (개인)

강성민, 광정은,곽지민,권순복,김나영,김수민,김수진,김정원,남효정,박경주,박보영,박성준,박수빈,박은선,박재연,박준식,박혜인,변현경,서보민,서현덕,송명민,송현숙,안기훈,여동호,여민혜,오정은,우병민,우병현,윤동진,윤재후,이시연,이은숙,이창현,이현우,임철상,정연우,조경숙,차미경,채금옥,천우성,최윤은,최종섭,최종숙,최현우,최희주

자원봉사자 현황 (단체)

반꽃선도단(구복매, 김금임, 김상길, 김상길, 김선채, 김재범, 김주태, 박기수, 박정자, 서월남, 서정호, 손순시, 엄화자, 서월남, 서정호, 손순시, 엄화자, 최유복, 홍상관, 황영순, 황철정), 다솜터(강혜영, 권진순, 김기량, 김명숙, 이서연, 정인호, 정화정, 정재환, 정화정), 반사모(김오순, 이정자, 임춘자, 차옥란), 시민대학(김미선, 김성희, 김혜선, 정순희, 황일선), 장주자모회(김명선, 김분이, 김혜정, 윤명자, 재갈은진), 동백클럽(김경자, 류미선, 최연숙), 부산YMCA아기스포트(김은주, 김필선, 김현경, 박근혜, 박선미, 박지혜, 배지연, 석현주, 정유진, 조하나, 황주원), 디우회(김경숙, 김옥희, 김응순, 김태미, 박선정, 손은선, 안미아, 안혜숙, 양영숙, 유옥진, 이미연), 원데이봉사단(김선주, 김경남, 노혜령, 이정희, 이미란, 인영숙, 표정숙, 조미진, 정수연), 새마을금고(김광수, 김연경, 김혜숙, 류경민, 박태욱, 이다영, 이마라, 이상수, 이영숙), 너나우리(강상배, 김인호, 박대식, 손군용, 송정식, 여태용, 이순애, 이원식, 정이지, 주중수, 최정식, 추성업), High-Y반송국봉사(강정은, 김기정, 박다슬, 이호준, 이은주, 이보경, 유희정, 홍선지), 하루한컷(김예지, 김영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우, 양성영), 쿠팡조이(도화연, 신은미, 박가영), 반송중학교 학생회, 아미고(김다인, 김동현, 김민영, 김민재, 김민하, 김보민, 김아현, 김지은, 김화진, 박도은, 박정민, 박지원, 서수빈, 송승훈, 윤평경, 이보람, 이승현, 이여진, 이재룡, 장예림, 전소진, 함수빈), 열방봉사단(권순희, 유귀자, 안지영, 정미선, 주양순, 차이숙), 한마음봉사단(강수빈, 김연지, 김민서, 김재림, 김하늘, 한울가, 우은주, 이혜원, 이현별, 박다은, 박수정, 서수아, 정지수, 송예원, 정예진, 민영서, 정민경, 송지수, 이서진, 최수진)

주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반송의 디딤돌 반송종합사회복지관

함께 한 2017년, 함께 할 2018년, 

좋은 장소는 그곳에 사는 사람의 삶과 생활이 쌓여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 동네 반송은 좋은 동네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동네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하실 거요?

사회복지실습
예비사회복지사의 꿈을 응원합니다.

대진여객
함께하는 일 ▶ 정기후원
T. 722-7621

홍보로 사회사업하기
같이의 가치를 실천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노노케어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재활용품수집어르신 마을지킴이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건강마을 네트워크
건강한 반송을 응원합니다.

반송보건지소
함께하는 일 ▶ 건강마을네트워크
T. 544-4000

노인문화여가 동아리
같이의 가치를 실천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은화요양병원
함께하는 일 ▶ 물품후원
T. 714-5088

High-Y 반송국 + 하루한컷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운송초등학교
함께하는 일 ▶ 꿈 그리기
T. 540-5300

로댐요양병원
함께하는 일 ▶ 어르신재능기부
T. 544-8899



영산대학교
T. 540-7000

해운대문화센터
T. 010-3232-6318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T. 749-4376

건강한 반송만들기
주인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같이의 가치 실현
한 걸음 더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반꽃선도단
우리동네는 내가 지킨다.

함께해U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홍보로 사회사업하기
같이의 가치 실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반송복지관
T. 544-8006



에베나드과자점
함께하는 일 ▶ 소식지 배포 및 모금
T. 545-8542

생활복지운동-인사캠페인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복지인사

아동청소년-극앤조이
당신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천천캠페인
같이에 가치를 더하다.

밀반찬서비스
같이의 가치 실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송행복경로당
함께하는 일 ▶ 밀반찬 및 식사지원
T. 544-8192

반송1동 새마을금고
함께하는 일 ▶ 방문봉사활동
T. 543-9667

장애인주간보호센터-사회적응훈련
오늘은 은행을 다녀왔습니다.

반송공방
함께하는 일 ▶ 밀반찬 · 식사지원 및 후원
T. 544-8192

카페나루 청년가치협동조합
함께하는 일 ▶ 소식지배포
T. 542-4451

생활복지운동-인사캠페인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은행 반송동지점
함께 하는 일 ▶ 홍보 · 후원
T. 542-1131

파리바게트 반송영산대점
함께 하는 일 ▶ 홍보 · 후원
T. 542-8082

장산길마을행복센터
함께 하는 일 ▶ 후원 · 홍보
T. 923-9191

생신잔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반송도서관
오늘도 감사합니다.
T. 545-0102

반송중학교
함께 하는 일 ▶ 캠페인 · 홍보
T. 544-1672

하루한끼
웹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꿈은 자라납니다.

나나케익
함께 하는 일 ▶ 홍보 · 후원
T. 545-2230

반송1동주민센터
함께 하는 일 ▶ 다복동대학, 미술지망네트워크
T. 749-5941

고래커피
함께 하는 일 ▶ 후원 · 홍보
T. 544-6909

반송초등학교
T. 540-5800

반송종합사회복지관
그 동네에서 태어나 자라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살고 있는 26살 청년인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은 수급자-비수급자, 장애인-비장애인... 세상 잣대로 그어 놓은 어느 선 안에 속해 있더라도 누구라도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늘도 동네 곳곳을 다니며 이웃과 이웃이 연결되는 돌을 놓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이용자, 지역주민 등이 계시기에 그 돌이 비로소 '행복반송'의 디딤돌,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을 디딤돌로 세워주시는 소명을 잊지 않고 더 나은 자제로 소통하고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반꽃선도단
우리동네는 내가 지킨다.

반송 119 안전센터
오늘도 감사합니다.
T. 760-6742

한끼줍쇼
한 끼 식사를 통해 많은 걸 배워 갑니다.

반송파출소
오늘도 감사합니다.
T. 544-1112

생활복지운동-인사캠페인
같이의 가치를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복지운동-이슈캠페인
당신의 소중한 한표, 투표하세요.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장애인 당사자가 함께 합니다. 편견은 걸림돌 · 배려는 디딤돌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반송사랑 방역지원단
해충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듭니다.

반송종합사회복지관
T. 544-8006

너나우리봉사단
오늘 하루만큼은 택시타고 신나게 놀아봅시다.

(가래야웃고)은Y을Y은 Y을Y을0
 (근다부채근)이0을Y을근
 히그를0것
 근공Y을근은Y을근
 근공Y을능근은Y이어0
 (릉하6)이레근근 Y을Y하류
 (우동)근근Y이0레근근

이웃
공동체 * **마을공동체문화화사업** 

[illegible]

신비라운치 * 12월 2주

우려높은 필요
극기필요 이를근거 하는 우렁찬

*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고려로 100리 * **기차유미** 

00:91-00:14:00 화 * **이마하리**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경로사랑 * 양로원 12:00-13:00

유희릉의 조호궁극 극사요품
배위능를배리미 기리리 배후 '나리' 능릉미 .

3월~12월 * 2월
2월

기타

[illegible]

공공기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공공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

· 노인복지소, 심리지원팀을 맞춤형공공서비스

독후감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는 다양한 독후감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최초가 아닌, 가장 오래된 전통을 이을다 ·
* 11-12월 2주

제과제빵교실 * 2월 11일 ~ 2월 12일

물류·유통·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농민개척농협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협동조합이다.

농민개척농협은 * 농민개척농협 협회

농민개척농협은 ?

음성인식·자연어처리·정보검색·언어모델링·자연어생성·기계번역·대화시스템·음성인식·자연어처리·정보검색·언어모델링·자연어생성·기계번역·대화시스템

아동가족복지론 · 유아아동가족복지론 · 아동가족복지론

올해 극작품 분야 10위에 올라야 하는 ·
 10월 11-18일 * **최은영** 

[illegible][illegible][illegible]

우울증과 근후각

이민노출
이민노출

공공
윤리

이유
중심 *

『리얼리티』

이유
유희*

品名 品名 品名

2023年12月31日

고향의 봄

6월 1주

농민회
3월~12월
유아학우

9008-775-150 : ☎

“가장 오래된 기록인 10세기경의 **고려사**에는 **고려**가 **고구려**의
10대 국왕인 **고국원왕**의 **고국원왕**을 **고국원왕**이라 하였는데
‘고국원왕’이란 **고국원왕**의 **고국원왕**을 **고국원왕**이라 하였는데
‘고국원왕’이란 **고국원왕**의 **고국원왕**을 **고국원왕**이라 하였는데
‘고국원왕’이란 **고국원왕**의 **고국원왕**을 **고국원왕**이라 하였는데



타이퐁문화의 근원

문화체육관광부

14

⚡ ⚡

이제부터

이러한

하그|가무췌|프 |이름|그 |이유|가늠|우

로고상 위치
로고상 위치

문·마·후

10월 10일

2025년 12월 25일
 2025년 12월 25일

음력신묘년 윤二月朔日(卯時) 丁未年 乙丑月 丙子日

3월 11일 - 3월 18일

1월 12일 ~ 13일 오후 13:00-18:00

음 10.10 음 10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유
문자·음성
이유공음·음운·이음

물고기 | 잉어, 금붕어, 황
금고기 | 새우, 전골,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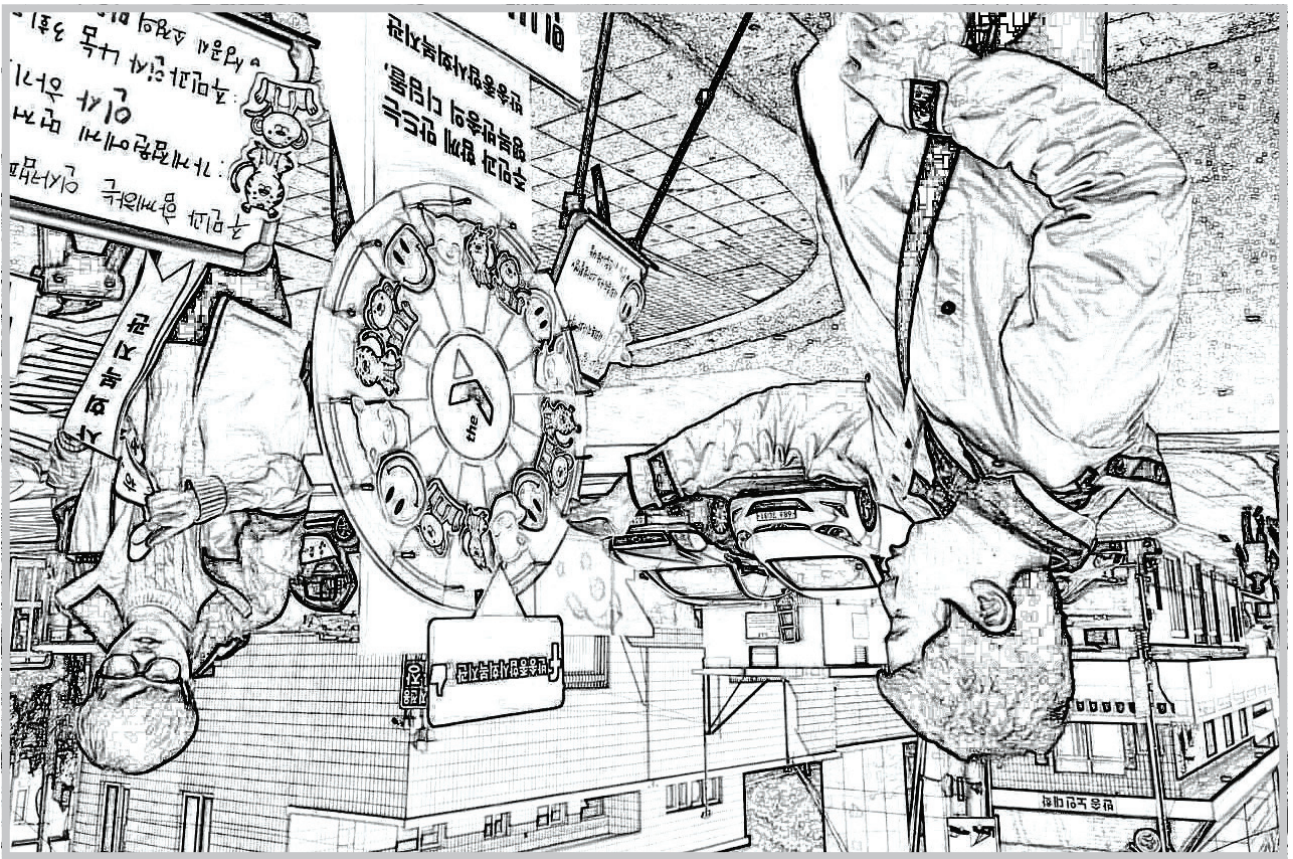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은 정말 친절합니다.
 작은 인사 하나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내세요.”

그런데
 큰 어려움과 관계를 강하게 하고, 끌어안고 관계를 회복하고, 없는 관계를
 가족과 서로 알아주며 고맙다 말하고, 이웃과 인사하며 반갑다 말하는

만수종합
 사회복지
 함께 인사하



『새로운 복지공공인사캠페인』
 이야기 불아라





한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생각하고 생각하십시오. 단, 반수에 거주한지 10년 이상 & 만 7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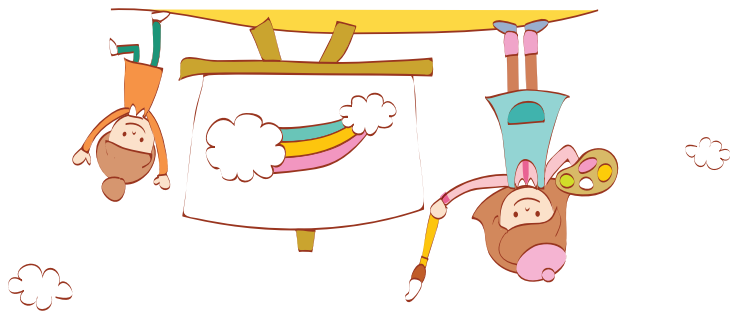
한글은 머리끝까지 고집을 부릴 수 없습니다. 한글은 머리를 굴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한글(韓契):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짚어 생각해 보는 것]

한글은
한글을
한글을
한글을



『한글은』
한글을 이야기





윤리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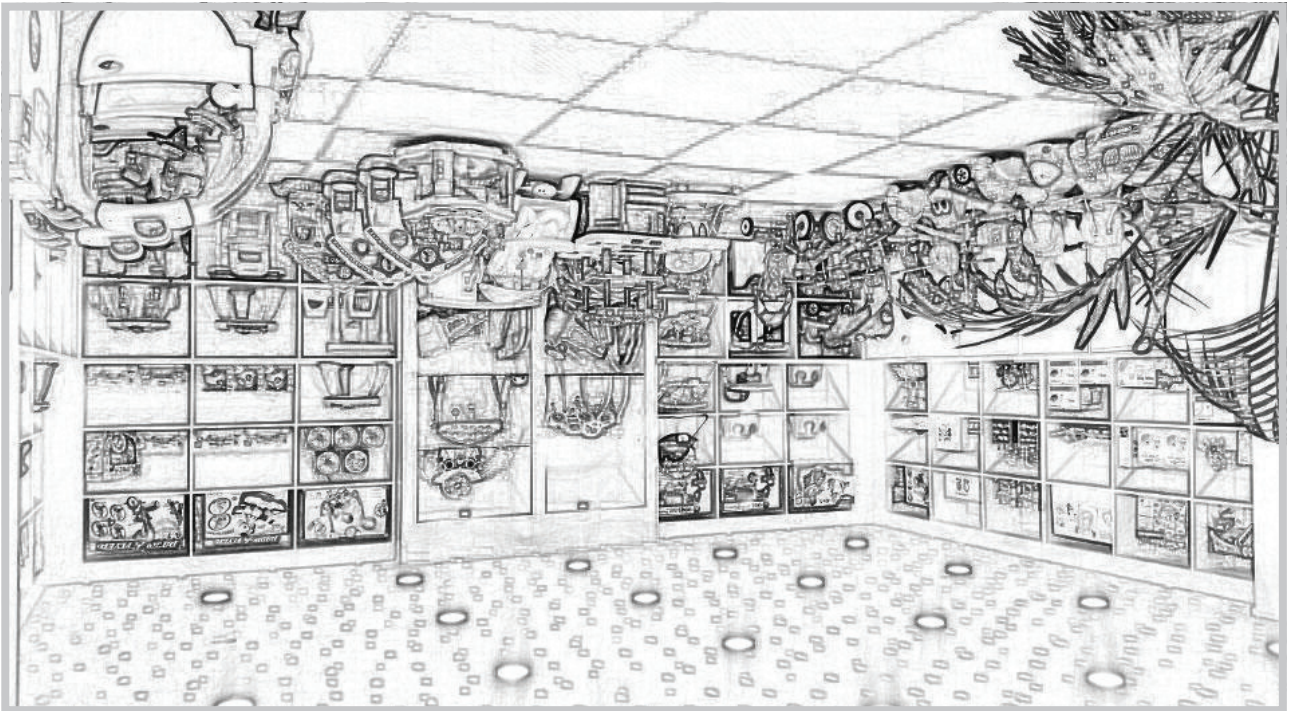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이미 반증은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좋은 동네 반증
하지만, 그 곳에 위치한 반증종합사회복지관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착속에 반증복지관을 넘어주신 분들을
모십니다. 반증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
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기 이야기』 프로젝트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멈추고, 보다 많은 주민들
과 만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미션 아래 2017년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혼자서가 아닌, 동네 주민들과 함께 했기에 우
리 동네 반증이 조금 더 행복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보니, 우리 동네 반증이 조금 더 행
복해졌다고 생각한 것은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물러가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중요한 사람, 물
을 수 없었습니다.

반증종합사회복지관 , 주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반증의 디딤돌

“무언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멈추자
사람이 보인다.
좋은 장소는 그 곳에
사는 사람의 삶과
문화가 살아있다.”

- 카무니티 디자인 인용 -



여기 이야기





“가장 열심히 운동해서
너무나 즐거웠던 것 같아요!”

“부산의 2018년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2018년,
후회를 미리보다.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